

2002년 의약품 매출 1위 Lipitor

판매액 20% 늘어 1위 돌입 ... 북미 및 서유럽에서 강한 성장세

세계의 의약품 매출이 2002년 4006억달러(회계감사 후) 및 4303달러(회계감사 전)로 8% 증가했다.

세계경기의 악화 및 신제품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의약품 시장은 2002년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.

비등록상표의 매출은 일본에서 저조한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북미 및 서유럽에서는 몇몇 특허가 만기됨에 따라 강세이다. 인구노령화 및 혁신적 치료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2003년 매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.

북미, 유럽(EU) 및 일본은 2002년 세계 의약품 소비비중이 85%였다. 북미의 의약품 매출은 2036억달러로 12%가 증가해 세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유럽(EU)은 906억달러로 8%가, 유럽 나머지 지역은 113억달러로 9%가, 일본은 469억달러로 1%가 증가했다.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, 아프리카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약품 매출은 316억달러로 11%가 증가한 한편 라틴아메리카는 165억달러로 10%가 감소했다.

상위 10대 치료분야의 매출비중이 31%였는데 그 가운데 3분야는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(Triglyceride) 경화제, 항정신병치료제(Antipsychotics) 및 EPO(Erythropoietin 적혈구생성바이오향품)로 성장률이 각각 10% 이상이다. 위궤양 치료제인 Anti-Ulcerant의 매출은 2002년 219억달러로 9%가 증가했고 세계 매출비중이 6%로 13년 동안 선도적인 위치를 이어왔다. 세계의 선도적 Anti-Ulcerant 제품인 Losec/Prilosec(Omeprazole)은 매출이 52억달러였다.

세계 매출 상위 10대 의약품(2002) (단위: 10억달러, %)

구 분	매 출	매출비중	증감률
1 Lipitor(Atorvastatin)	8.6	2%	20
2 Zocor(Simvastatin)	6.2	2%	13
3 Losec/Prilosec(Omeprazole)	5.2	1%	▽19
4 Zyprexa(Olanzapine)	4.0	1%	21
5 Norvasc(Amlodipine)	4.0	1%	6
6 Erypo(Epoetin Alfa)	3.8	1%	18
7 Ogastro/Prevacid(Lansoprazole)	3.6	1%	3
8 Seroxat/Paxil(Paroxetine)	3.3	1%	13
9 Celebrex(Celecoxib)	3.1	1%	▽1
10 Zoloff(Sertraline)	2.9	1%	12
합 계	44.7	11%	11

자료) IMS World Review 2003

2위 치료분야인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경화약품은 2002년 매출이 217억달러로 12%가 증가했다. 3위 치료분야인 항우울성제(Antidepressant)는 171억달러로 5%가 증가했다.

세계 10대 베스트셀링 약품의 2002년 매출은 447억달러로 2001년보다 11%가 증가했다. Lipitor는 매출이 2001년 70억달러에서 2002년 86억달러로 증가해 1위를 차지했고 콜레스테롤 경화약품인 Zocor는 62억달러로 13%가 증가해 2위에 올랐다. Losec/Prilosec의 매출은 52억달러로 2001년보다 19%가 감소해 3위로 밀려났다.

세계 상위 10대 판매약품 가운데 성장이 가장 빠른 약품은 정신분열증(Schizophrenia) 및 조울증(Bipolar Disorder) 치료약인 Zyprexa인데 2002년 매출은 40억달러로 전년대비 21%가 증가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0/21>